

# 표목의 기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nctions of Headings

김태수(Tae-soo Kim)\*\*

### □ 목 차 □

- |                 |                        |
|-----------------|------------------------|
| 1. 서론           | 3.3 대처기능               |
| 2. 표목의 의미       | 4. 전거통제와 표목            |
| 2.1 용어상의 문제     | 4.1 발전과정               |
| 2.2 표목의 기능      | 4.2 기계가독목록에서의 연결구조     |
| 2.3 기본표목의 기능    | 5. 데이터요소의 확장           |
| 2.4 기본표목의 기능 비판 | 5.1 주제명표목의 추가          |
| 3. 부출표목의 기능     | 5.2 목차와 초록의 추가         |
| 3.1 특정도서의 검색기능  | 5.3 백과사전과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통합 |
| 3.2 관련저작의 집중기능  | 6. 요약 및 결론             |

### 초 록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은 기본표목만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부출표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계가독목록에서는 기본표목 이외에 각종 제어번호나 표준서지번호를 사용하여, 이 기능이 크게 확장되었다. 특정저자의 저작과 특정저작의 제판을 집중하는 목록의 기능도 부출표목과 참조, 주기, 통일서명이 기본표목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퍼목록에서는 서지적 관계유형을 규정하고 관련저작간을 연결할 수 있어, 기본표목을 배제하더라도 목록의 기능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접근점의 확장과 관련저작간의 연결수단을 통하여 이용자의 검색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 ABSTRACT

Locating function of a particular item is more of added entry than a main entry heading.

This function was expanded especially in the machine readable cataloging by introducing the control number and standard bibliographic number. Assembling function of the main entry heading is on a level with that of cross reference and notes, added entries, uniform headings. Links among all variant forms of a heading in hypercatalog will be made for collocating of all publications of a given author. The link of bibliographic records in this catalog can be freed from the dependence on standardized heading form. The function of the catalog is not affected even though by abandoning the concept of main entry heading.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to raise users' finding opportunities through expansion of access points and linking devices among related records.

\* 이 논문은 1994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논문접수일: 1995년 10월 4일

## 1. 서론

기록류의 대량생산과 정보수록기술의 혁신에 따른 다양한 표현매체의 출현으로 이들 자료를 기술하고 검색하는 목록의 역할은 전보다 오히려 더 중요시되고 있다. 기계가독목록의 출현과 더불어 각종 목록이 연계되어 하나의 서지정보망이 형성됨으로써, 특정 정보관리기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색인기능이 전체 학술정보에 대한 색인으로서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지정보망의 확대에 따라, 목록 구조상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서지기술의 표준화에 따라, 기술(記述)을 표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표준서지번호를 접근점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문헌에 대한 검색기능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특히 저작간의 다양한 서지적 관계유형을 표현할 수 있어, 저작단위(literary unit)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목록 구조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록의 기능은 크게 보아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집서 중의 특정문헌을 식별하여 검색하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과 관련된 자료를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Cutter 1904, 12)에서 규정된 이래, 이후에 발표된 각종 목록규칙(Lubetzky 1960; ALA 1967; ALA 1988)과,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도 재확인되었다(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1971, xiii). 목록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에서 보면 16세기 이래 특

정문헌의 검색기능을 목록의 주된 기능으로 파악하고, 후자의 기능에 보다 더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였다. 후자의 기능은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물을 목록상에 집중하는 기능으로서, 여기에는 특정 저작과 관련된 모든 상이한 판을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런데 목록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은 저록요소 중 주로 표목이 담당하였고, 특히 전통적인 목록에서는 기본표목이 목록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목록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시해 온 기본표목을 미래의 하이퍼 목록(hypercatalog; supercatalog)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를, 부출표목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즉 접근점으로서의 기본표목이 목록의 기능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며, 목록규칙에서는 이 표목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기본표목을 중요시한 이유나 당위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기본표목의 기능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목록의 기능과 관련하여 검토함으로써, 접근점의 수용범위와 서지적으로 관련된 저작간의 연계수단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표목의 의미

### 2.1 용어상의 문제

표목은 전통적인 목록에서 배열의 기준이 되는 단어나 구, 부호를 지칭하는 말로서, 마치 사

전에서 사항을 배열할 때의 올림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 올림말을 배열의 눈금으로 삼아, 관련항목이나 주제를 배열하고 동시에 검색도구로 사용한다. 사전에서 특정항목을 찾고자 할 때 검색의 단서로 올림말을 사용하는 것처럼(남영신 1989), 목록에서도 검색의 단서가 되는 단어나 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영미목록규칙에서 '표목'이란 말과 '기입'이란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먼저 기입(entry)이란 말은 목록상에서 서명과 발행사항이 포함된 도서의 기록으로서 오늘날의 저록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Cutter 1904, 19), 기입의 선정은 곧 기본기입의 선정이라고 규정하여(ALA 1967, 9) 기입과 기본기입을 동일시하였으며, 이 기본기입이란 개념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ALA 1988, 311). 여기서 기본기입이란 말은 완전한 기입 또는 주된 기입이면서 대개 저자기입으로 규정하여, 기본기입과 저자기입을 거의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하였는데, 이 저자기입은 영미계목록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입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ALA 1988, 21.1A; Maxwell 1989, 253). 그러면서 표목과 기본기입이란 말이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규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기본기입이란 개념을 2가지 의미로 규정하였는데, 하나는 완전한 서지정보를 수용한 저록(著錄)이란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저록에서 사용된 표목이란 의미가 그것이다(ALA 1967, 345). 따라서 기입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었다. 첫째는 목록상에서 도서에 관한 저록(레코드)이고, 둘째는 기본기입이며, 셋째는 대개 저자기입이며, 넷째는 표

목이란 의미이다.

영미목록규칙 2판에 와서야 이들 개념을 각각 구분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즉 기입이란 "목록에서 한 자료에 대한 기록"이며, 기본기입은 "해당 자료를 일관되게 식별하고 인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한 한 자료에 대한 완전한 목록레코드"(ALA 1988, 617)로 규정되어, 기입이란 말을 저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목이란 말을 "목록 기입의 상단에 위치하여 접근점이 되는 이름이나 단어 또는 구"(ALA 1988, 618)로 규정하고, 접근점은 "서지레코드를 검색하고 식별하기 위한 이름이나 말, 부호"(ALA 1988, 615)로 정의되어, 표목과 접근점이란 용어는 의미상 검색도구를 뜻하여, 종래 기입과 표목간의 불분명한 성격을 구분하였다. 그런데 접근점이란 말은 종래의 표목이란 개념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기계가독목록과 함께 출현한 것으로, 이 목록에서는 이론상으로 어떤 데이터요소라도 접근점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입과 표목간의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접근점이란 의미에서 표목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기본표목'이란 말은, 기본저록의 표목으로 선정된 접근점(ALA 1988, 21.0A1, 311)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서지레코드란 의미에서는 기입이란 말 대신 '저록'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표목과 구분하였다.

## 2.2 표목의 기능

종래의 목록에서는 저록의 구성요소를 크게 둘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배열과 검색요소가

되는 표목이고, 다른 하나는 식별요소로서 대상자료의 서지정보인 기술(記述)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요소를 구비한 경우라야 완전한 저록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목록이 지닌 두가지 기능을 실현하는 수단은 저록요소로 보면 주로 표목이 담당해 왔다. 그것은 저록의 배열시 표목을 배열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며, 따라서 표목은 당연히 검색요소가 되고, 동일 표목의 집중을 통해 관련 저작을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특정문헌의 검색이라고 하는 첫번째 기능은 그 문헌 자체의 서지정보를 검색요소로 사용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 문헌에 기재된 저자나 서명을 표목으로 사용해야 검색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저록의 대상을 특정문헌, 즉 서지단위(bibliographical unit)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두번째 기능은 동일 저자의 상이한 여러 저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문헌이 지닌 서지정보가 아니라 특정 저자나 저작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격의 표목을 사용해야 가능한 것이다. 특히 상이한 서명으로 발행된 저작과 상이한 형식의 이름을 사용한 저자의 저작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서는 특정문헌이 아니라, 저작단위를 저록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Verona 1950). 이것은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이 특정문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헌으로 표현된 저작에 있으며, 따라서 특정 저작과 관련된 저작을 목록상에서 집중하는 기능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록의 대상으로 저작을 기준해야 한다는 것이다(Verona 1963, 147; Jolley 1963, 160;

Wilson 1989, 5-16). 동일 저자의 상이한 문헌에서 저자명(형식)이 다를 수 있고, 또 동일 저작이 상이한 서명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목록이 지닌 두가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표목은 상충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3. 기본표목의 기능

### 2.3.1 기본표목의 의미

목록상에서 저작물을 집중하는 표목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의 집중기능과, 특정 저작과 관련된 상이한 판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일부 목록이론가들은 목록의 중요 기능으로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특정문헌의 검색기능보다 특정 저자의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집중하는 두번째 기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저자표목이 다른 표목에 비해 중요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Spalding(1967, 391-392)은 목록에서 기본표목의 우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기본표목은 일반적으로 저자의 지적 산물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Petee(1936, 270)의 지적에 따르면, 도서관 하나의 독립된 저작이 아니라, 특정 저자의 저작을 표현한 하나의 매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동일 저작에 속하는 상이한 표현물을 그 저작단위로 모으는 것이 목록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며, 특정 저자의 저작을 목록상에

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저자표목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Lubetzky(1969, 23)는 기본표목의 존재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사람으로서 특정 도서와 저작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출판물이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특정 저자의 특정 저작의 한 판이며, 이 출판물을 그 저작의 다른 판이나 번역서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저자의 다른 저작과 연결하기 위해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저작의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표목을 중시하게 된 주요인은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저작단위로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표목을 규정하고 있는 목록규칙을 통하여 실제로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3.2 특정 저자의 저작 집중기능

### 2.3.2.1 개인저작물

개인저작물과 개인의 전집, 선집에서는 저자명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그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하도록 현행 목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1.4A1). 이 규정에 의하면 비록 목록의 대상인 문헌에 저자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자명을 표목으로 하도록 하여,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저작물에서는 해당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수용함으로써,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에 반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1) 위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주정보원에 기재된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주로 식별되는 이름을 기본표목의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ALA 1988, 22.1A). 따라서 상이한 형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자인 경우, 이 저자의 저작물을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참조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점이다.

2) 필명을 사용한 저자의 경우로서, 특정 저자가 상이한 저작물에서 각기 다른 필명을 사용하거나 필명과 본명을 사용한 경우, 개개의 이름을 표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이름을 연결하기 위한 참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2.2B2).

Lubetzky(1953, 46)도 상이한 형식의 이름(저자명)을 사용한 저작물에서는 각각 상이한 표목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본명뿐만 아니라 특정문헌에서 필명을 사용한 경우, 그 저작에 기재된 이름을 표목으로 하고, 이 사실을 목록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안내카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특정 저자의 저작을 모으는 기본표목의 기능은 저자명의 형식이 그 저자의 모든 저작물에서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일저자의 상이한 저작물에서 두가지 이상의 상이한 이름(형식)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이 기본표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참조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비록 동일 인물이라도 사용한 이름형식이 상이하면 저작을 집중하는 것은 기본표목이 아니라는 점이고, 이것은 바로 기

본표목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목의 형식이 저작을 집중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2.3.2.2 공저서

#### 1) 2-3인의 공저서

현재 2-3인의 공저서에서 대표저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기재된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하고, 두 번째 이하의 공저자는 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1.6C1). 따라서 두 번째 이하의 공저자는 부출표목으로 기능하게 되고, 이 경우 특정 저자의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은 물론, 특정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는 기능에서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ubetzky(1969, 36)도 이와 같은 구분을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이 경우 서명저록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특정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기 위하여 저자기본표목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공저서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저서에서 첫 번째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규정한 것은 첫 번째 저자가 저작의 내용에 주된 책임을 진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장보원의 저자를 그대로 저자로 인정하고, 이를 식별상 검색도구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들 공저자 중 누가 저작의 내용에 더 중요한 역할(책임성)을 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록의 역할도 아니다. 표목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공저서의 저자를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으로 구분하는 이유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목록규칙에서 기본표목이란 개념을 배제하더라도 목록의 기능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 2) 4인 이상의 공저서

대표저자가 없는, 4인 이상의 공저서에서는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고, 처음에 기재된 저자만을 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1.6C2). 이 규정은 저자기본표목원칙과 직접 대립되는 규정으로서, 목록의 기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서명기본표목을 규정한 점이다. 현행 목록규칙에 의하면 특정 범주의 자료에 대해서는 비록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도 서명기본표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ALA 1988, 21.1C1). 여기에는 4인 이상의 공저서, 종교의 경전, 편집방침에 의해 간행된 저작물(사전, 백과사전), 종합서명을 지닌 전집(21.7B1)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일부 문헌에 대해서 서명표목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저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목록체제에서 보면 이것은 저자표목이라는 것이다. 즉 저자가 식별상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의 대처수단으로 서명표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ICCP Report 1963, 2.1c항, 26). 이 경우 서명표목은 저자표목을 대신한 표목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로 저자표목이란 점이다. 그런데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이란 관점에서 보면, 저자를 한단계 거쳐 간접적으로 저작에 접근하는 저자저록에 비해 서명으로 접근하는 것이 직접적이라는 점에서(리재철 1975, 11), 서명저록이 더 논리적이고 검색효율에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

서 상기와 같이 일부 문헌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저록에서 서명을 표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 사람의 저자로만 부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목록의 두가지 기능이 불완전하게 수행됨을 알 수 있다. 표제면상의 첫 번째 저자만이 표목으로 제시되고, 두 번째 이하의 저자는 표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문헌은 단지 첫 번째 저자나 서명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현행 목록규칙을 적용한 저록에서는 첫 번째 저자나 대표저자 중 어느 하나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표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저자를 접근점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록에서 검색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저자를 검색요소로 한 경우, 특정문헌의 검색은 물론, 특정 저작의 집중기능도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ICCP의 목록원칙부터 최근의 영미목록규칙 2판(R)에 이르기까지,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집중하는 것이 목록의 기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4인 이상의 공저서에 관한 한, 두 번째 이하의 저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작활동에서 대등한 역할을 수행한 저자 중에서 특정 인물에게만 표목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며, 더욱이 검색측면에서 보면 기본표목의 역할이 목록기능과 관련하여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4인 이상의 합집이나 합철에 포함된 모든 저작과 저자를 기술의 주기사항으로 제시하여 이를 분출저록이나 분립저록을 통하여 이들 각 저작의 서명과 저자로 접근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정신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1990, 86-89).

셋째, 저자의 수를 표목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기 위해서 저자기본표목을 규정하면서도, 4인 이상의 공저서에는 서명기본표목을 규정하였고, 특히 저자의 수를 표목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표목선정기준으로 저자의 수를 3인으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저자의 저작물의 집중기능이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5명이나 7명이 아니고 3명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아마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의 기억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억이란 개인차에 따라 다른 것이고, 따라서 이를 표목선정의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논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는 목록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과 관련된 모든 저자를 저록에서 표목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시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기계가독목록에서 이러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로 인해 목록의 기능이 불완전하게 수행되어, 결과적으로 검색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 기준의 설정근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결국 4인 이상의 공저서에서 특정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부출표목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기능도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 2.3.3 특정 저작의 제판 집중기능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저작단위로 집중하

는 기능으로서, 기본표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현행 목록규칙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3.3.1 개작서

일반적으로 개작서인 경우(의역, 재구성, 어린이용 개작서, 극화하였거나 소설화하여 문학 형식을 달리한 판)는 개작자를 표목으로 하고, 원저작에서 이름-서명부출저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1.10). 아울러 개작자가 미상이면 서명으로 기본표목하고 원저작에서 부출표목(이름-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작과 개작서에서 각기 독립된 표목을 규정한 것으로서, 결국 이들 원작과 개작서를 목록상에서 저작단위로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부출표목과 기술요소인 주기에 의하여 수행됨을 알 수 있다(ALA 1988, 2.7B2, 80). 다만 개작서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원작의 표목아래 저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이 경우에만 기본표목이 집중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3.2 개정판

#### 1) 원저자가 주된 책임을 진 경우

개정판과 증보판, 최신판에서는 원저자를 표목으로 규정하여, 저작의 집중기능은 기본표목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LA 1988, 21.12A). 그러나 이 경우도 ① 원저자가 해당 판의 주정보원에서 저작으로 표시되었거나, ② 원저자가 해당 판의 본서명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인물이 그 판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저작에서 기본표목의 집중기

능은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원작의 축약판은 원저자를 표목으로 규정하여 기본표목이 집중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원저자가 주된 책임이 없는 경우

원작의 저자가 개정판의 내용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개정판의 주정보원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정자를 표목으로 하도록 규정하여(ALA 1988, 21.12B), 원작과 개정판에서 각기 독립된 표목을 인정하였고, 이 경우 이들 저작을 한자리에 집중하는 것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부출표목과 주기임을 알 수 있다.

### 2.3.3.3 번역서

번역서는 원서의 표목아래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역자를 부출하도록 규정하여(ALA 1988, 21.14), 특정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유번역물인 경우에는 개작서에 준하여 역자를 표목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번역서와 원서의 기본표목이 상이하고, 따라서 이들 저작을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본표목의 기능도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저작단위를 집중하는 기본표목의 기능이 불완전하고, 오히려 부출표목이나 주기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저작을 집중하는 기본표목의 기능도 제한적이며, 부출표목과 주기도 기본표목과 대등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목록상에서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저작단위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표목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정보원에 기재된 저자 모두를 예외없이 표목으로 제시하고 이들



저자와 관련저작을 연결하는 장치가 도입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 2.4. 기본표목의 기능 비판

### 2.4.1 선정기준의 무일관성

#### 2.4.1.1 상이한 이름을 사용한 저자

1) 자신의 저작물에서 상이한 형식의 이름을 사용한 저자인 경우, 주로 식별되는 이름을 표목의 형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2.2A1). 즉 저작물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이름형식, 참고문헌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름형식, 최근명의 순서로 표목의 형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저자의 저작물의 소장범위와 사용한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형식의 표목이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상이한 형식의 이름에서 선정된 표목형식으로 연결하는 도구는 참조임을 알 수 있다(ALA 1988, 26.1B1). 비록 개인저자인 경우라도 저작물에서 상이한 형식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들 저작을 집중하는 것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이한 주제분야에서 두가지 이상의 이름(필명과 필명, 필명과 본명)을 사용한 저자인 경우, 각 분야에서 사용된 이름을 표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이름을 연결하기 위하여 참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2.2B2). 여기서도 상이한 이름을 사용한 저자

의 저작을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참조를 통해서 수행된다는 점이다.

3) 현대 작가로서 필명과 본명으로 두가지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각 문헌에 기재된 이름형식을 표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이름간을 연결하기 위한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일 저작의 상이한 판에서 상이한 형식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하나의 표준형식을 표목의 형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2.2B3). 이상의 경우에서 저작을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참조라는 것이고, 동일 저작의 상이한 판에서만 기본표목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규정을 보면 1)번은 특정 형식의 이름을 표목형식으로 선정하고, 이와 상이한 형식에서 표목의 형식으로 참조를 작성하는데 반해, 2)번과 3)번은 개개의 문헌에 기재된 이름을 각각 표목으로 하고, 이들 표목간을 참조를 통하여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상이한 선정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목록의 기능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특정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고 검색하는 수단이란 점에서 보면, 어떤 형식의 표목을 접근점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이한 형식의 표목 상호간을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정 형식의 표목으로 한방향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이상의 이름(형식)을 사용한 저자의 경우, 이상과 같은 상이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목록의 기능과 관련해 보면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본표목만이 특정 저자의 저작물을 집중하는 것

이 아니라 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2.4.1.2 이름을 변경한 경우

1) 이름을 변경한 저자는 변경된 이름(형식)을 표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이름에서 변경된 이름으로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ALA 1988, 22.2C; Maxwell 1989, 304).

2)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체명으로 발간된 자료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체명을 표목으로 하고, 기존의 표목과 변경된 표목에서, 각각 참조를 작성하여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4.1C1).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름이 변경된 개인과 단체의 표목을 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단체출판물에서는 표목을 각기 독립적으로 선정하는데 반해서, 이름이 변경된 개인에게는 특정 형식의 표목을 규정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는 어느 경우거나,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바로 참조라는 점이다.

더욱이 관련된 저작물에서는 그 문헌 자체에서 표목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ALA 1988, 21.28B1), 동시에 별도의 각주에서는 상반된 기준을 제시한 경우도 볼 수 있다(ALA 1988, 351의 각주 7). 즉 가사집에서는 작사자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사집과 관련된 음악작품의 작곡자를 기본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본문과 비평(주해)이 함께 수록된 저작(ALA 1988, 21.13)과 전기자료가 수록된 저

작(ALA 1988, 21.15)에서는 주정보원의 정보와 표현형식에 따라 상이한 표목이 선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자료에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기준에 일관성을 상실하였고, 목록작성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등 표목선정에 절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리재철 1975, 11). 특히 목록규칙에서 '불분명한 경우(ALA 1988, 21.1B2, 21.2, 21.10, 21.18C)'를 인정함으로써, 목록작성자에 따라 상이한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비록 기본표목의 선정기준으로 도서의 내용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 다수의 인물이 관련된 저작물 등 저작유형의 다양화와 주정보원의 표현형식, 목록작성자의 편향된 결정에 따라 상이한 표목아래 목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목록규칙의 규정과 달리 표목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참조를 통해서 상이한 형식의 이름을 연결함으로써 저작을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은 집중기능에서 기본표목보다는 참조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록에서 특정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규정한 것은 복수저록체계의 목록에서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고, 외부 목록이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자관의 서지정보에 통합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2.4.2 표목형식의 문제

기본표목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사용하는 표목의 형식과 목록에서 선정된 형식이 상이할 수 있고, 이것은 검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

한다.

1) 복수 저자의 저작물이거나 저자성이 혼합된 저작물인 경우, 이용자들이 목록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논리가 목록규칙의 규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접근점의 형식이 반드시 목록의 그것과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가능한 여러가지 형식의 표목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목록에서 사용되는 표목은 서지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주 정보원에 기재된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ALA 1988, 22.1A). 이로 인해서 원하는 자료가 실제 소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참조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알고 있는 어떤 형식의 표목을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문헌에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목록이용자에게 표목선정규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저작에서 저자명의 형식이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서양인명에서 복합성을 가진 이름이나 불임표(-)로 연결된 이름, 접두사나 접미사를 가진 이름, 결혼 후의 이름과 처녀명, 귀족이나 종교상의 칭호, 본명과 필명이 그러하다. 또 문화권과 언어권의 상이에서 오는 이름의 다양성, 완전명과 약자로 표기된 이름 등 모든 이름이 변경될 수 있고 때로는 철자상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 이밖에 상이한 번자체계에 따라 인명을 각기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Kaula and Singh 1979, 211). 따라서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 후의 이름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선정된 기본표목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저자명이 변경되면 표목과 통일표목도 수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가변요인을 지닌 기본표목을 일관되게 선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며, 또 대다수 이용자들이 목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3) 기계가독목록에서의 문제

현행 기계가독목록(USMARC, KOR-MARC)을 보면 기본표목필드(1XX)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 문헌에 대한 기본표목이 정보관리기관간에 상이하게 되면, 이들 상호간에 목록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기본표목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연결장치를 통하여 관련 표목간을 연결하게 되면 저작의 집중기능은 가능하다. 이 필드가 없더라도 서지레코드의 유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필드는 단지 전거통제를 위한 용도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서지정보의 공유라는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표목형식의 통일은 후조합전거통제로 해결할 수 있고, 관련 저작의 집중기능도 전통적인 목록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 4) 통일표목의 한계

저자기본표목을 중시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 전체목록을 전체한데서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기본표목의 주된 목적도 특정문헌의 검색기능보다는 통일표목으로 기능하여 특정 저자의 저작물과 특정 저작의 제판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저작이 상이한 서명으로

발행되었을 때 이들 저록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하여 통일표목을 사용하는 것이다(ALA 1988, 25.1A, 484). 그러나 통일표목의 선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표목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목록마다 상이하고, 한 목록내에서조차 상이하기 때문이다. 통일표목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① 그 저작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가 ② 그 저작의 상이한 판이 어느 정도인가 ③ 기본표목이 서명인가 ④ 저작의 원어가 다른 언어인가 ⑤ 연구목적상 목록의 이용범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ALA 1988, 25.1A, 484). 더욱이 목록규칙에서 통일표목의 사용을 규정하면서도, 목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ALA 1988, 25.1A, 484), 통일표목선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표목의 선정시, 관용명이나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을 통일표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도서관이나 목록작성자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기본표목이 상이하게 선정되고, 결국 외부 목록과의 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을 통일표목으로 선정하더라도, 이와 상이한 형식의 이름과 연결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특정 형식의 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표목간을 연결하는 장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2.4.3 분할목록에서의 기본표목

사전체목록에서는 특정한 자료군에 대해서는 서명저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영미목록규칙

에서도 본서명이 본질적으로 기본표목과 동일하거나 그 표목의 참조와 동일한 경우에는 서명부출저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1.30J, 356). 이와 같이 서명저록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서명접근을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기본표목은 항상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본표목이 변경되면 다시 서명저록을 작성해야 하고,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분할목록을 유지하게 되면 모든 문헌에 대해 서명표목을 작성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시간과 노력을 피하면서, 동시에 검색기능의 확대라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할목록에서는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

#### 2.4.4 배열요소로서의 기본표목

종래의 저자부출저록에서 기본표목은 배열요소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본저록방식을 채택하는 목록체계에서 부출저록의 데이터요소를 보면, 부출표목과 기술요소인 서명 사이에 기본표목이 삽입되어 결과적으로 표목이 중복되고 있다. 그런데 저자목록의 배열시, 표목인 저자명을 기본표목이나 부출표목이나로 구분하지 않고 대등한 표목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합배열한다는 점이다(ALA 1968, 26B2). 다시 말해 부출저록의 배열시, 부출표목 다음에 오는 기본표목을 배열요소로 삼지 않고, 바로 서명을 배열요소로 삼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저자목록에서는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파일로 통합배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출저록에 포함된 기본표목은 배열요소로 보면 무의미한 것이다.

결국 특정문헌의 검색기능과 특정 저작단위를 집중하는 기능은 전적으로 기본표목만의 기능도 아니며, 또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본표목이 중요하다는 것은 단일저록방식의 목록에서만 그 의미를 지닐 뿐, 목록의 기능수행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 3. 부출표목의 기능

부출표목은 특정 도서의 검색기능과 관련저작의 집중기능, 그리고 다른 저록을 대치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을 부출표목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 3.1 특정 도서의 검색기능

부출표목은 목록의 첫번째 기능인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을 수행하는데 주로 사용된다(Lubetzky 1960, ix-xii). 그래서 특정 저자의 저작 및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저작단위로 집중하는 것은 기본표목의 기능이고, 특정 도서의 검색은 부출표목의 역할로 이해하였다(Petee 1936, 285-286). 영미목록규칙에서는 기본표목 이외에 목록이용자가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목으로 부출표목을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1.29C).

일반적으로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따라 선정된 표목으로서 대상문헌에 기재된 저자명이나 서명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부출표목은 1차적으로는 이용자에게 검색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출표목은 주정보원에 기재된 저자나 서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저자명이나 서명, 또는 그밖의 사항에서 원하는 도서를 검색하는 경우, 검색수단으로 당연히 서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원하는 문헌을 신속하게 검색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 기본표목이나 부출표목이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 3.1.1 저자명부출표목

현행 목록규칙을 보면 2-3인의 공저서에서 기본표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저자의 저작을 검색하고 집중하는 기능은 부출표목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4인 이상의 공저서에서는 최초 저자만을 부출표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색이란 측면에서 보면, 저자부출을 제한함으로써 접근점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검색의 실패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목록의 기능과 상치되고 있다. 목록의 기능과 관련하여 보면, 4인 이상의 공저서에서 저자에 의한 특정문헌의 검색이 불가능함은 물론, 특정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는 기능도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출되는 저자의 수에 제한을 둔 결과로서, 이 규정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3.1.2 서명부출표목

Lubetzky(1941, 425-426)는 서명부출의

기능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1) 저자나 주제명이 표제면상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도서의 검색기능과 2) 저자나 주제명을 알고 있을지라도 특정 도서의 직접 검색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영미목록규칙에서는 개인표목이나 단체표목, 통일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한 모든 문헌에 대하여 서명부출하도록 규정하여(ALA 1988, 21.30J1), 직접 해당문헌을 검색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즉 ① 본서명이 본질적으로 기본표목과 동일하거나 그 표목의 참조와 동일한 경우 ② 목록작성자가 만든 서명인 경우 ③ 서명이 주제명표목과 동일하거나 주제명표목의 참조와 동일한 경우 ④ 관용적인 통일서명을 악보의 통일서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서명저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ALA 1988, 21.30J, 356). 이와 같이 서명저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전체목록을 전제한 것으로서, 이것은 이용자의 서명접근을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을 지닌 부출표목도 그 기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문헌의 서명을 예외없이 표목으로 제시해야 검색기능이 완벽하다는 점이다.

### 3.2 관련저작의 집중기능

현재 관련저작의 유형으로는 속편, 부록, 색인, 용어집, 각본, 가사집, 하위총서, 연속간행물의 특별호, 연속간행물의 추록의 합집 등을 규정하고(ALA 1988, 21.28A1), 특수유형으로 개작서, 개정판, 번역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주제로 서로 관련된 저작이나 총서로 관

련된 저작을 이 유형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이란 목록상에서 다른 저작과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을 공유한 저작간에는 서지적으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문헌이 가지는 서지적 관계유형에는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계층관계, 딸림자료관계, 전후관계, 공유관계의 7가지 유형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Tillett 1987, 23-25). 그러나 현재의 목록에서는 이들 서지적 관계유형 중 일부를 기본표목이나 부출표목, 상호참조, 통일서명, 분출저록, 주기, 형태사항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특히 표목의 선정과 관련해 보면, 관련저작물에서는 그 문헌자체에서 기본표목을 선정하고, 원작에서 부출표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1.28B1; 21.30G). 다시 말해서 관련저작물을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부출표목이나 주기에 의해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지적 관계유형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연결하는 장치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관련저작간을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으며(김태수 1994b, 179), 이것은 바로 하이퍼 목록에서 구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Bertha 1993, 211), 관계유형의 설정과 연결장치의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2.1 주제관련 저작의 집중기능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망라적으로 검색하고, 동일 주제의 저작을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은 바로 주제명표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제관련 저작의 집중기능은 기본표목

이 아니라 부출표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Lubetzky(1953, 43, 59, 106)는 부출저록에서도 부출표목 다음에 저자기본표목이 오는 것이 부출표목 다음에 서명이 오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욱이 이와 같은 형태의 목록구조가 이용자에게 훨씬 만족스럽고 유용한 배열이며, 따라서 출판물의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게 되면, 주제명저록에서는 저록의 내재적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서명의 자모순으로 무분별하게 배열된다고 하여 저자저록이 서명저록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주제명목록에서 기본표목의 배열문제를 검토해 보면, 특정 저자의 저작이 불완전하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3인 이하의 공저서에서는 대개 첫번째 기재된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하도록 현행 목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주제 다음에 2차적으로 배열(집중)되는 저작은 기본표목으로 선정된 저자만이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기본표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저자의 저작물은 주제명아래 집중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표목을 전제로 한 목록체계에서는 특정 주제명표목에 관련된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목록이용자는 주제접근시 어떤 저자가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헌이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제명부출저록에서 주제명표목 다음에 기본표목 대신 서명이 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2.2 총서관련자료의 집중기능

동일총서에 속한 저작을 목록상에서 한자리

에 집중하는 기능은 총서부출표목이 수행한다. 총서명은 서명의 한 유형이지만, 총서명을 부출표목으로 하는 경우, 주제요소가 아닌 총서명은 일반적으로 부출하지 않고, 주제적 요소를 지닌 총서만을 부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Needham 1971, 73). 영미목록규칙에서도 ① 총서에 속한 자료가 공통의 물리적 특성만으로 서로 관련된 경우 ② 재고관리나 우편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총서번호를 사용한 경우(ALA 1988, 21.30L, 357)에는 총서부출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총서명 부출표목도 관련저작의 집중기능에서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 3.2.3 번역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번역서의 저록은 원서의 표목아래 작성하고, 역자를 부출하도록 규정하여(ALA 1988, 21.14), 특정 저작을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인물이 특정 저작물에서는 저자로, 그리고 다른 저작물에서는 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이 인물의 저작물을 집중하는 기능은 부출표목과 관련하여 불완전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기본표목이 인명인 경우 역자부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ALA 1988, 21.30K1). 즉 ① 번역서가 운문(韻文)이거나 ② 번역서 자체가 중요성을 지닐 때 ③ 한 저작이 동일 언어로 두번 이상 번역된 경우 ④ 번역서의 주정보원에서 역자가 저자임을 암시하는 경우 ⑤ 목록이용자가 기본표목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저자부출표목도 저작단위를 완전하게 집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번역서가 운문이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혹은 자유번역물인 경우로 역자부출표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자 개개인을 독립된 부출표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특정 저자의 저작물을 집중하는 기능은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 3.3 대처기능

저자명의 이니셜이나 저자명의 약칭 등은 일반적으로 참조로 표현되는 영역이다(ALA 1988, 22.10A, 405). 특히 2인 이상의 저자가 하나의 필명을 사용하여 협력한 저작물에서는 이 필명을 기본표목으로 하고, 이들 저자의 개개의 본명으로부터 선정된 표목으로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1.6B). 이 경우 특정 저자의 저작물을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이 아니라 참조에 의하여 집중된다는 점이다.

영미목록규칙에서는 특수한 경우 부출저록 대신 참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LA 1988, 21.29G). 즉 총서명부출저록에서 표목과 상이한 총서명에서 총서명표목으로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6.5A). 또 동일표목아래 다수의 부출저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들 부출저록 대신 적절한 참조를 작성하거나(26.6A), 아니면 공동의 표목으로 하나의 부출저록을 작성하고, 여기에 기본저록으로 참조하는 방식이다(26.6B). 결국 부출저록에서도 참조가 저작물의 집중기능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조를 대처하는 기능으로서의 부출저록보

다도, 오히려 부출저록을 대처하는 참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1) 기본표목도 특정문헌을 검색하는데 있어 하나의 접근점일 뿐이다. 부출표목도 기본표목과 대등한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서명은 저작에의 직접적인 접근책이란 점에서 특정문헌의 검색은 오히려 부출표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목록의 두번째 기능은 기본표목만의 기능이 아니라 부출표목과 참조, 주기도 대등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저자의 저작물을 완벽하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즉 ① 표제면에 기재된 모든 저자를 예외없이 표목으로 수용해야 하고 ② 여기에 일정한 표목형식을 유지하거나 ③ 참조 ④ 혹은 주기와 같은 관련저작간의 연결수단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단위로 집중하는 기능에서 기본표목의 역할은 단지 부분적인 것으로, 개인저작물에서만 적용될 뿐이며, 이 경우에도 표목의 형식과 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저자의 저작을 집중하는 목록의 두번째 목적은 표목의 형식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기본표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일 저자의 상이한 형식의 이름간을 연결할 수 있다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기본표목을 선정하였더라도 표목의 형식이 상이하면 저작단위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현행 목록체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표목을 사용하더라도 저작단위로 집중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표목의 관계를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서지적으로 관련된



저록간을 연결하는 수단이 개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표목이란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하더라도, 저록간의 연결수단이 강구된다면 목록의 기능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4. 전거통제와 표목

전거통제란 말은 관련된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집중하기 위하여 인명과 서명, 주제명 등 접근점을 통제하는 전과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표준형식의 접근점을 선정하고, 이와 상이한 형식의 접근점과 연결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Burger 1985, 3; Hagler and Simmons 1982, 181; Avram 1984, 331; Clack 1990, 1). 결국 전거통제란 목록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목형식의 표준화와 표목간의 연결을 통하여 접근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연결기능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현재의 목록 체계에서는 표목의 형식과 구조가 전반적으로 목록의 구조와 형식을 결정하여 왔기 때문에, 표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레코드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목록구조에 일정한 통제가 요청되었다.

##### 4.1 발전과정

전통적인 목록에서 저록은 다른 저록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성된 다음, 목록 중의 다른 저록과 연결되었다. 서지정보를 연결하는 하나의 독립된 요소가 바로 개개의 저록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록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

의 파일만 존재하며, 이 파일에서는 표목 대신 저록자체를 자모순으로 배열하거나, 주기사항을 통해서 다른 저록과 연결되었다. 그 예로 Cutter의 목록구조에서 기본적인 요소는 저록으로서, 여러가지 상이한 형식의 저자명이 수록된 저록간을 직접 연결하는 목록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구조에서는 단지 저자명의 형식간을 연결하는 표목의 참조가 아니라 참조저록을 사용하여, 상호관련된 저록을 자모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서지적 관계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관련 레코드간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서, 현재와 같은 표목간의 관계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였다(Bregzis 1982, 21).

특히 Cutter가 사용한 용어에서 중요한 점은 '기입'이란 말을 오늘날의 '저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연결구조라는 말도 저록간의 관계를 의미한 것으로, 현재의 목록구조의 근간이 되는 표목간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이다(Ibid., 20). 그래서 번역서와 같이 상이한 서명으로 간행된 저작인 경우, 원서명아래 배열함으로써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목록에서는 주로 파일 내의 저록을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한자리에 모으는 저록연결구조였다.

1950년대 카드목록의 확장보급에 따른 저록 관리상의 효과 때문에 새로운 전거통제방식이 도입되었다. 종래 저자-서명 대 저자-서명으로 표현되었던 참조구조가 보다 효과적인 전거구조로 대체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록연결구조가 사라지고, 현행과 같은 표목연결목록이 표준구조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표목연결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저록과는 무관하게 표목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저록간의 관계

를 제시하는 기능은 별도의 독립된 기능으로 발전된 것이다. 현재의 연결구조는 2단계로 거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예컨대 저자의 경우, 먼저 특정 저자의 모든 상이한 이름형식 중 하나를 표준형식으로 선정하고, 이 표준형식의 이름이 그 저자의 상이한 출판물의 저록과 연결된다. 따라서 연결방법이 저록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저자명은 특정문헌의 저록이나 식별상의 특성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참조로 연결된 것이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표목구조에서 저자명과 서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형식 그 자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 저자의 이름형식과 상이한 서명과의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의 형식을 결정하고나서 이 이름과 모든 상이한 서명을 기계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그 구조가 단순하여 전자통제구조의 자동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카드목록에서만 특별히 의미를 지닌다. 저자명과 서명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에서 능률적이지만, 때로는 특정 출판물과는 근본적으로 관련없는 인위적인 형식의 저자명이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bid., 22). 특히 표목연결구조의 자동화를 통해서 연결의 깊이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서지적 관계를 표현하는 목적은 서지기술과 관련없는 상이한 형식의 표목간을 연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찾고자하는 서지레코드간의 다양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목록에서 관련된 다른 저작이나, 동일 저작의 다른 양식의 표현물의 저록간을 연결하는 수단인 주기의 적용원칙이 체계적

이지 못하며, 그것도 한 방향으로만 작성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번역서명에서 원서명으로, 후속판에서 전판으로만 연결이 가능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저작간을 연결하는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현재의 목록구조로는 관련저록간의 연결이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저작단위로 집중하는 기능은 개개의 서지자료간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먼저 규정하고 이들 저록을 상호 연결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 4.2 기계기독목록에서의 연결구조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는 특정형식의 기본 표목을 선정하고, 이와 상이한 형식의 이름과 선정된 표목을 참조로 연결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표목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일 저자의 상이한 이름형식 중 하나를 표준형식으로 선정하고, 다른 형식의 이름에서 선정된 표목형식으로 참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참조의 설정방향이 일방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표준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상이한 이름 상호간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양방향으로 직접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표목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을 집중하는 기능은 물론,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이란 측면에서 기본표목의 기능은 다른 표목과 대등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정 형식을 기본표목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어떤 형식이 표준형식인지를 불문하고, 이용자가 검색시 사용하는 모든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

거통제에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선거통제란 여러 상이한 형식의 접근점 중에서 특정 형식을 '선정' 하는 기능에서 이들 상이한 접근점을 '상호연결' 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기계가독목록에서는 둘 이상의 상이한 형식의 접근점을 연결하는 선거통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형식의 저자명을 접근점으로 사용하면, 이와 상이한 이름 형식을 사용한 문헌도 동시에 검색되는 시스템으로서, 소위 후조합선거통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Matthews 1985, 74). 이것은 접근점으로서의 저자명과 이와 상이한 형식의 이름을 독립된 파일로 유지하여, 이들 이름간을 연결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형식의 저자명을 접근점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정 저자의 모든 문헌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선거통제시스템은 단지 목록에서 표목의 망을 구성하는데 그 의미가 한정된다. 그런데 기계가독목록에서는 저록간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표현하는 장치를 저록구조에 도입하여 관련된 저록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개개의 저록에는 그 문헌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의 저자명을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저자의 문헌을 연결하는데 표준 형식의 저자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련 저록을 자모순으로 배열할 필요도 없다. 직접 저록간을 연결하는 목록구조에서는 서지레코드의 관리가 단순하여 특정문헌의 검색은 물론 관련저작을 집중하는 기능이 크게 신장될 것이며, 이것은 곧 서지기관 상호간의 서지정보유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계가독목록에서는 저록간의 관계유형을

표현하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표준형식의 표목을 선정하지 않고도 관련 저록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함으로써 단순히 서지적으로 관련된 저록의 존재여부는 물론, 저록간의 특수한 관계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서지레코드의 기본표목필드(1XX)는 부출표목필드(700-730)와 통합하여(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4, 199-209), 이 통합된 필드를 선거통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저록에서 서명사항에 종속된 저자표시사항을 독립된 하나의 기술요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현규섭 1992, 25)과 함께, 주제명 선거는 부출표목필드(600-651)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주제명선거에서 '흑인'이란 개념을 표현하는데 'AFRICAN AMERICANS', 'BLACKS', 'AFRO-AMERICANS', 'NEGROES'와 같은 주제명을 사용한 경우, 이들 형식 중 어느 특정 형식을 선거형식으로 정하지 않고, 모든 형식을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료에 표현된 주제명의 형식을 그대로 입력형식으로 사용하고, 탐색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주제명을 바로 검색요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의 서지정보망에서는 자관의 목록이 외부의 다양한 서지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될 것이며, 특정 목록이 다른 목록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상이한 데이터베이스간에 사용된 표목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선거통제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자관의 목록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형식의 표목

을 유지하는 것은 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아울러 탐색자가 선택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이퍼목록은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상이한 언어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이한 언어로 표현된 주제명을 통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어떤 특정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망라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록구조에서는 서지정보의 검색과정시 하나의 표준화된 표목형식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서지레코드가 다른 서지레코드와 가질 수 있는 모든 서지적 관계유형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들 관련된 저록 상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게 되면 목록의 기능은 연결장치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MARC와 공통커뮤니케이션포맷과 같은 기계가독목록에서는 연관저록필드와 새그먼트를 통해서 서지적 관계유형 중 일부를 실제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태수 1994a). 이 목록에서는 표목의 형식과는 무관하게 레코드를 연결할 수 있어, 굳이 기본표목을 선정하지 않고도 목록의 두번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5. 데이터요소의 확장

현재 목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요소 이외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요소와 이를 접근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요소의 확장은

바로 접근점의 확장으로 연계되고, 이것은 전통적인 목록의 표목과 함께, 목록이용자의 검색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것은 바로 목록의 기능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전제로 한다.

첫째, 기술진보에 따라 목록은 지금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한 검색도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기계가독목록에서 키워드검색기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검색기법의 변화로 인하여, 저록의 첫머리에 오는 표목만이 아니라 목록레코드내의 어떤 데이터요소도 접근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탐색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 레코드를 탐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록의 이용행태가 변화될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나 인공지능 등을 탐색기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전자도서관과 같은 미래의 정보관리기관에서는 이용자의 사고과정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목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 목록에서는 기존의 목록규칙이나 서지포맷과 같은 물리적인 제약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계가독목록에서 특정문헌의 검색 기능은 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각종 제어번호(LC제어번호, 국립중앙도서관제어번호)나 표준번호(ISBN, ISSN, BIBLID, ISRN)를 접근점으로 사용하여 특정 서지단위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목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외에 전통적인 목록의 기술요소가 아닌 목차나 초록, 저자에 관련된 정보를 목록에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문헌의 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하이

퍼목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확대 수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목록과 서지의 통합도 예견할 수 있는데 관련 주제에 어떤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목록이용자의 일차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된 목록정보로부터 이용자는 필요한 문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과 관련저작의 집중기능은 현재의 기계가독목록에서도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비록 서지적으로 관련된 저작간을 연결하는 기법을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계층관계, 파생관계, 전후관계), 개개의 서지단위가 지니는 서지적 관계유형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표목과 통일서명, 참조, 주기 등을 통하여 이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나, 관계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연결하는 수단이 불완전하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참조나 주기의 작성원칙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그것도 한방향으로만 작성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저작간을 연결하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저작단위로 집중하는 기능이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이퍼목록에서는 서지적 관계유형에 따라 필드와 레코드, 파일간을 연결한 목록으로서(Bertha 1993, 214), 관련 저작이나 저작단위를 집중하기 위하여 이들 저작간을 연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장치를 레코드구조에 포함하게 될 것이다.

### 5.1 주제명표목의 추가

기계가독목록에서는 주제검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주제접

근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헌당 부여하는 주제명표목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OCLC 단행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레코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레코드당 주제명표목의 수가 1.4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O'Neill and Aluri 1981, 66). 이것은 문헌에서 취급된 주제보다 포괄적인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레코드 중 18.6%는 전혀 주제명표목이 없는 레코드로 보고된 바 있다. 검색의 재현율을 높이고, 검색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주제검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헌당 부여되는 주제명표목의 수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Studwell 1990, 71-73, 85-86; 1991, 93). 실제 실험을 통하여, 주제명의 수를 레코드당 최대 35개까지 부여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Syracuse and Poyer 1991, 78). 여기에는 문헌의 각 장이나 각 논문에서 취급된 특수한 주제명도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나 색인에서 사용된 용어는 일반적인 주제명표목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제명을 보완하는 효과를 지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주제검색 결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특정 주제에 관련된 문헌이 검색되지 않거나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제명표목표의 구조와 사용언어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제명표목표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도치표목 대신 자연어순으로된 표목을 채택하고, 복합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후조합방식을 도입하고, 주제와 지명간의 배열 순서를 일관되게 하고, 세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시소러스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

다(한상완 등 1995, 5; Chan 1986, 131-132).

## 5.2 목차와 초록의 추가

목차를 서지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것은 목록자의 색인어와 이용자의 탐색어간의 일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주제명표목과 같은 통제어휘를 사용한 경우, 이용자의 탐색어와 일치하지 않거나, 주제명표목의 문법과 어의적 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탐색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시스템에서 문헌의 목차를 레코드에 수록한 결과, 특정 주제의 문헌검색이 크게 개선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Beatty 1992, 98-99; Enhancing... 1992, 106). 이것은 이용자에게 확장된 레코드를 제공한 결과이다. 특히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과 단행본의 장(chapter)에 접근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목차를 레코드에 수용하는 것은 주제검색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Dwyer 1991, 29-51). 이론상으로는 모든 목차를 기계가독목록에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기계가독레코드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 이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록은 문헌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면서, 초록 자체를 키워드나 주제명으로 사용할 수 있어, 레코드에 대한 접근점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데이터요소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초록을 사용한 결과, 접근점이 크게 증가되었고, 검색실패율도 크게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다(Byrne and Micco 1988).

## 5.3 백과사전과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통합

하이퍼목록은 단순히 소장자료에 대한 색인 기능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수록한 백과사전 전문을 목록에 수용하는 것이다(Troll 1992, 114). 이용자는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백과사전에서 확인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바로 목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록은 전통적인 소장자료의 색인기능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의 색인기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서지와 목록의 통합도 예상할 수 있다. 주제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장문헌으로 한정된 목록보다는 관련주제의 문헌을 망라적으로 제시하는 서지가 훨씬 더 유용한 도구이다. 따라서 미래의 목록은 서지레코드와 소장레코드가 연결된 목록으로 재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저록에 수록되는 데이터요소의 확장을 통한 접근점의 확대방안을 고찰하였다. 하이퍼목록의 이용형태는 주로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차나 색인, 초록에 포함된 어휘를 전통적인 표목과 함께 접근점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서지나 백과사전이 결합됨으로써 비통제어휘의 사용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연어를 바로 색인어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특정 형식의 표목을 논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접근점의 확대와 관련 레코드간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표현함으로써, 종래 불완전하게 수행

되었던 목록의 기능은 하이퍼목록에서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검색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것이며, 특히 목록의 기능이 완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는 다른 목록구조를 필요로 한다. 현행과 같이 표목의 유형과 기능을 특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목록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이퍼목록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정보관리기관의 목록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정보에 대한 종합색인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와 초록이 포함될 것이며, 목록레코드를 작성한 기관이나 물리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모든 유형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 6. 요약 및 결론

목록의 양대 기능인 특정문헌의 검색기능과 특정 저자의 저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목록상에서 집중하는 기능에서 기본표목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에서 보면,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은 대등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본표목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출표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계가독목록에서는 기본표목 이외에 각종 제어번호나 표준서지번호를 접근점으로 사용하여 이 기능이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저자의 저작과 특정 저작의 제판을 집중하는 기능은 기본표목만의 기능이 아니며, 부출표목이나 참조, 주기, 통일서명도 이와 대

등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제면상의 모든 저자를 예외없이 표목으로 제시해야 하고, 여기에 표목의 형식과 참조, 주기가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서지적 관계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연결하는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실증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한 기계가독목록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목록기능상 특정 표목을 기본표목으로 설정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기본표목이라는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하더라도 목록의 기능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접근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본표목도 다수의 접근점 중의 하나일 뿐이다. 기본표목을 무엇으로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근점의 확장을 통하여 이용자의 검색기회를 확대하고, 관련저작을 연결하는 것이 서지데이터의 공유라는 측면에서도 유익한 일이다.

접근점의 확대와 관련 레코드간의 서지적 관계유형을 표현함으로써, 종래 불완전하게 수행되었던 목록의 기능은 미래의 목록에서는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표목과 표목을 연결하는 현행 목록구조가 직접 저록간을 연결하는 구조로 변경될 것이고, 이것은 특정 형식의 표목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관련 저작을 서로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지나 백과사전을 목록에 통합함으로써, 관심주제분야의 문헌을 망라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관련 주제의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검색시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제약이 줄어들어, 다양한 언어로 된 주제명을 목록에 통합할

수 있어 서지정보망의 통합에 기여하리라 평가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본표목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형식의 접근점을 사용할 수 있는 전거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자관의 목록과 통합하고, 아울러 서지적 관계유형을 표현하고 연결하는 목록구조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태수. 1994a. 공통커뮤니케이션포맷,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 . 1994b. "목록에서의 서지적 관계와 연결구조에 관한 연구", 文獻情報學論叢, 李載喆教授 定年紀念論文集, 서울: 九美貿易, 159-182.
- 남영신. 1989. 우리말 분류사전 (1), 이름씨편, 개정증보판. 서울: 한강문화사.
- 리재철. 1975.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도협월보, 16(10): 9-12.
- 한국도서관협회. 1990. 한국목록규칙, 3.1판. 서울: 동 협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4. 예술자료관 보유 데이터변환을 위한 연구, [서울]: 동진 흥원.
- 한상완 등. 1995. "주제명검색요어집 개발에 관한 연구", 도서관, 50(1): 3-23.
- 현규섭. 1992. "자동화목록법(MARC)의 저자 표시 독립원칙; 속성데이터 편성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연속적 연구 1", 도서관, 47(4): 3-31.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the Association.
- . 1968. ALA Rules for Filing Catalog Cards. Prepar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ditorial Committee's Subcommittee on the ALA Rules for Filing Catalog Cards, ed. by Pauline A. Seeley. 2nd ed. Chicago: the Association.
- . 198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Prepar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Edited by Michael Gorman and Paul W. Winkler. 2nd ed. 1988 Revision. Chicago: ALA.
- Avram, Henriette D. 1984. "Authority Control and Its Plac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9(6): 331-335.
- Beatty, Sue. 1992. "Subject Enrichment Using Contents or Index Terms: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 Experience," Advances in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Edited by Marsha Ra. vol. 1. Westport: Meckler, 93-104.
- Bertha, Eva. 1993. "Inter—and Intrabiblio-



- graphical Relationships: a Concept for a Hypercatalog", In: Opportunity 2000: Understanding and Serving Users in an Electronic Library. Essen: Universitätsbibliothek Essen, 211-223.
- Bregzis, Ritvars. 1982. "The Syndetic Structure of the Catalog," In Authority Control: The Key to Tomorrow's Catalog. Proceedings of the 1979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Institutes. Edited by Mary W. Ghikas. Phoenix: Oryx Press, 19-35.
- Burger, Robert H. 1985. Authority Work: the Creation, Use, Maintenance, and Evaluation of Authority Records and Files,.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 Byrne, Alex and Mary Micco. 1988. "Improving Subject Access in an OPAC: the ADFA Experi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9(5): 432-441.
- Chan, Lois Mai. 1986.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 Clack, Doris Hargrett. 1990. Authority Control: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nstruction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Cutter, Charles A. 1904. Rules of Dictionary Catalog,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wyer, Jim. 1991. "Bibliographic Records Enhancement: From the Drawing Board to the Catalog Screen", In: Enhancing Access to Information: Designing Catalogs for the 21st Century, David A. Tyckoson, New York: Haworth Press, 29-51.
- "Enhancing USMARC Records with Table of Contents". 1992. Advances in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Edited by Marsha Ra. vol. 1. Westport: Meckler, 105-113.
- Hagler, Ronald and Peter Simmons. 1982. The Bibliographic Record and Information Technolog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1963. Repor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held Paris, 9th-18th Oct., 1961. eds. A. H. Chaplein and Dorothy Anderson, London: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 . 1971.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October, 1961.

-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a Verona.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 Jolley, Leonard J. 1963. "The Function of the Main Entry in the Alphabetical Catalogue: a Study of the Views Put Forward by Lubetzky and Verona.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Report, eds. A. H. Chapleyn and Dorothy Anderson. London: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159-163.
- Kaula, P. N. and S. N. Singh. 1979. "Supremacy of Title Entry over Author Entry," *Herald of Library Science*, 18(3): 205-218.
- Lubetzky, S. 1941. "Title fifth Column of the catalog," *Library Quarterly*, 11: 412-430.
- . 1953.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A Critique of the ALA Rules for Entry and a Proposed Design for Their Revision*.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 . 1960. *Code of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y; an Unfinished Draft for a New Edition of Cataloging Rules*. Prepared for the Catalog Code Revision Committe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 1969. *Principles of Cataloging*. Los Angeles: Institute of Library Research, University of California.
- Matthews, Joseph R. 1985. *Public Access to Online Catalogs*, 2nd ed. New York: Neal-Schuman.
- Maxwell, Margaret F. 1989. *Handbook for AACR2: Explaining and Illustrating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1988 Revis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Needham, C. D. 1971. *Organizing knowledge in Libraries: an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 2nd Rev. ed. London: Andre Deutsch/Grafton Book.
- O'Neill, Edward T. and Aluri, Rao. 1981.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 Patterns in OCLC Monographic Record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5(1): 63-80.
- Petee, J. 1936. "The Development of Authorship Entry and Formulation of Authorship Rules as Found in the Anglo-American Code," *Library Quarterly*, 6: 270-286.
- Spalding, C. Sumner. 1967. "Main Entry: Principles and Counter Prin-

- principl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1: 389-396.
- Studwell, William E. 1990.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hilosophy, Practice, and Prospects*, New York: Haworth Press.
- . 1991. "Of Eggs and Baskets: Getting More Access Out of LC Subject Headings in an Online Environment", In: *Enhancing Access to Information: Designing Catalogs for the 21st Century*, David A. Tyckoson, New York: Haworth Press, 91-96.
- Syracuse, Richard O. and Robert K. Poyer. 1991. "Enhancing Access to the Library's Collections: a View from an Academic Health Center Library", In: *Enhancing Access to Information: Designing Catalogs for the 21st Century*, David A. Tyckoson, New York: Haworth Press, 53-90.
- Tillett, Barbara Ann Barn. 1987. *Bibliographic Relationships: Toward a Conceptual Structure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Used in Cataloging*,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 Troll, Denise A. 1992. "The Mercury Project: Meeting the Expectations of Electronic Library Patrons," *Advances in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Edited by Marsha Ra. vol. 1. Westport: Meckler, 114-135.
- Verona, Eva. 1950. "Literary Unit versus Bibliographic Unit," *Libri*, 9(2): 79-104.
- . 1963. "The Function of the Main Entry in the Alphabetical Catalogue: a Second Approach,"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Report.* eds. A. H. Chaplin and Dorothy Anderson, London: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145-157.
- Wilson, Patrick. 1989. "Second Objective," In: *Svenonius, Elaine, ed.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venonius. San Diego: Academic Press, 5-16.